

# 唐代 이후 韓·中 釋奠學禮의 共同發展

— 東亞教育圈의 연속존재와 관련하여 —

吳 富 尹\*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唐 이후 中國 學校教育의 傳統理想
- III. 釋奠學禮 韓國에서의 발전
  - 1. 釋奠禮制의 受容 … 統一新羅時代
  - 2. 釋奠禮制의 普及 … 高麗時代
  - 3. 廟學禮制의 自我發展 … 朝鮮時代
- IV. 맺 음 말

## I. 문제제기

동양 전통학교의 教育理想은 무엇일까? 그 학교 제도가 크게 學制와 學禮로 구별될 수 있다면, 그 특징은 또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 주변 국가의 학교 제도가 중국의 것을 수용한 것이라면, 그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지금까지 教育史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이러한 방면에 대해 별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주변 국가의 전적에서 중국의 제도와 비슷한 것이 보이면, 이는 중국 교육 제도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데에만 급급해 버릴 뿐, 환경과 정서에 따른 주체적인 제도 수용에 대해서는 고찰해 보기를 대단히 인색하였다. 일개 외래문화의 수용이란 먼저 자국의 환경과 정서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때로는 그 제도에 대한 실험 단계까지 거친다. 「文化變容」이란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며, 문헌상의 기록과 실제 시행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漢學專門大學 觀光中國語通譯科(復旦大學 歷史系 博士研究生)

동양의 학교 교육 理想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교육가의 신상에서 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상을 짙게 받을 수 있는데, 필자는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첫째, 중국의 학교(지방학교 포함) 제도는 학생모집으로부터 학관의 임명, 학습규정, 졸업 후 출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官이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또한 당시 군주의 정치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시대의 정치환경부터 엄격히 살펴 보아야 한다. 중국의 학교를 달리 「官學」이라 불렀고, 그 교육의 흥쇠 여부가 군주정치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둘째, 學校 教育理想은 먼저 「學校」라는 공간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理想은 學校라는 教育 공간에서부터 출발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교육사의 발전과정을 “「學」에서 「廟學」으로의 發展”이라고 말한 高明士 교수의 언급은 이 방면에 있어 독특한 문제제기를 해 주고 있다.<sup>1)</sup>

70년대 이후 세계 동양 사학계에서는 동양을 하나의 整體요, 집합체로서 연구하려는 풍조가 일기 시작했다. 그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로 唐代에 이르러서는 정치, 문화 방면에 있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질서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東亞文化圈의 形成」, 「中國의 天下秩序의 成立」, 「東亞教育圈의 形成」 등의 그것이다.<sup>2)</sup> 그런데 이러한 이론을 들여다 보면 우선 漢~唐(특히 安史之亂 이전의 盛唐時期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고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唐末 五代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거의 없이 마치 宋 이후에는 이전의 질서 관념이 허물어져 버림과 동시에 동아시아 세계가 붕괴되어 버린 착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에도 대단히 소홀하였다.

정말 宋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관념은 무너져 버렸단 말인가? 그렇다면 清末에 이

1) 「羅·麗時代廟學制的創立與展開」(「大東文化研究」, 第23輯,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89年), p280. 그는 동양전통의 학교 제도를 「廟學制」라 하였다.

2) 대표적인 것으로 J.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Cambridge Press, 1968);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の形成-總說-」(「岩波講座世界歴史」, 4, 東京, 岩波書店, 1970年); 同氏, 「東アジア世界」(「綜合講座日本の社會文化史」, 1, 東京, 講談社, 1973年); 唐代史研究會編, 「東アジア文化圈の成立をめぐって」(東京, 刀水書房, 1978年); 井上光貞 外編, 「東アジアにおける儀禮の國家」(「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9, 東京, 學生社, 昭和57年 12月); 高明士, 「從天下秩序看古代的中韓關係」(「中韓關係史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民國72年 12月); 同氏, 「中國文化與東亞世界」(「唐代東亞教育圈의 形成」, 國立編譯館, 民國73年) 등을 들 수 있다.

르러 서양의 화포 문명에 억눌려 동아 세계가 무너지기까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존재해왔던 과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학자들은 거란, 여진, 몽고, 만주족 등 유목민족이 중원을 침략한 후로 이들이 동아세계에 끼친 역사발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唐 이후 「中國의 天下秩序」의 종적 관념이 漢族에서 유목민족으로 교체됨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에 빛을 바래 버렸다는 데에도 큰 원인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사관에서 볼 때 아직도 동아세계에는 일원적 정치질서 못지 않은 새로운 문화질서 형성 노력이 중국과 주변국가 사이의 공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宋 이후 중국의 정복왕조와 주변국가들 사이에 전개된 전통 중국 학교의 발전 노력이 그 것이다. 그 노력은 이들 사이에 교육 발전의 공통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통의식은 學制라기보다 學禮의 존승에서 볼 수 있다. 결과 宋 이후 清末에 이르기까지 동아세계는 정치적 항쟁관계가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唐 이후 韓·中 양국의 학교 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사항을 學禮, 즉 教育理想의 공통발전이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공통성과 특수성을 살펴보려 한다. 서투른 부분이 많을 줄 안다. 질정을 바란다.

## Ⅱ. 唐 이후 中國 學校教育의 傳統理想

唐代的 문화를 漢民族 중심의 華夏文化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면, 唐은 漢 이래 발전해 온 중국 전통의 문화를 총결하여 내부적으로는 宋 이후의 문화 발전에,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가에 전파하여 그 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唐代的 문화특징 가운데 국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국 전통의 교육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漢武帝 元朔 5年(B. C. 124) 「興太學」에서 출범한 중국의 학교 교육은 魏·晉·南北朝 및 隋代를 거치면서 학교 행정이나 교학체계면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고, 唐代 특히 7·8세기의 盛唐時期에 이르러서는 전통 중국의 학교제도를 총결하여 宋 이후의 교육발전 및 나아가서는 주변국가의 교육제도 수립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시말해 唐 이후 대내외적인 교육제도는 唐制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수정·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sup>3)</sup> 당시에 총결된 전통학교 제도를 살펴보면

3) 이 분야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多賀秋五郎, 「唐代教育史の研究」(東京, 不昧堂, 昭和 28년; 高明士, 앞의 「唐代東亞教育圈의形成」 등을 들 수 있다.

學制상의 발전도 있었지만, 學禮의 발전 노력은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지적될 수 있다.<sup>4)</sup> 宋 이후 정복 왕조나 주변국가의 학교교육 발전 노력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교육은 周代에 視學 및 養老·饗射·大射·釋奠·鄉飲酒禮 등 각종 禮儀의 실시를 중시하는 禮樂教育에서부터 출범하였고,<sup>5)</sup> 그 교육은 종교 활동의 일부분이었다. 唐代 國子監의 독립적인 교육 행정체계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학교 교육이 「宗廟禮儀」를 관장하는 太常(처음에는 奉常)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교육이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교육 자체는 아직도 禮樂教育의 연장선상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관학을 지칭, 이하 같음) 교육이 정식 출범한 漢武帝 元朔 5年(B. C. 124) 「興太學, 置明師, 以養天下之士」<sup>6)</sup> 하면서 동시에 禮儀의 실시까지 강조하는 조서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導民之禮, 風之以樂, 今禮壞樂崩, 朕甚憫焉, …… 其今禮官勸學, 講義怡聞, 舉遺興禮, 以爲天下先.”<sup>7)</sup>

이는 「興學詔書」로 나타나 있는데, 당시의 그로서는 사회의 통치 기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養士」도 중요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국시대 이래 실추된 禮樂教育의 회복도 급선무였을 것이다. 이가 꼭 학교 교육에 빚대어 내린 조서는 아니었지만, 그 조서를 발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興太學」의 시기(B. C. 124)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그는 교육장소를 「興禮」의 첨병 역할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禮는 교육과 관련되어 실시한 것이므로 달리 「學禮」라고도 할 수 있다.<sup>8)</sup> 그 후 魏·晉, 南北朝를 거치며 동란은 잦았지만 이들 禮儀의 거행 및 이를

4) 拙文, 「7·8世紀 唐代 學校制度의 教育史的 意義」(『東아시아研究論叢』, 제3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2년), pp. 102~110.

5) 胡士瑩, 「周代教育之研究」(『史地學報』, 第3卷 第1·2期, 民國13年 6月); 陳東原, 「古代中國教育」, 上海, 1935年 4月, pp. 26~29.

6) 「漢書」, 卷56 「董仲舒傳」.

7) 「漢書」·本紀」.

8) 「學禮」의 정확한 개념은 없다. 여기에는 시대성까지 담겨져 있다. 秦蕙田은 「五禮通考」 卷169 「嘉禮學禮條按」에서 “古禮經有學禮一篇, 見於大戴記, 賈誼新書所引(拙著按: 「漢書」, 卷48에 보임), 惜其文不傳.”이라 하였고, 王聘珍은 「大戴禮記解詁」에서 “學禮者, 古禮經五十六篇中之篇名也.”라 하였다.

중시하고 있는 사례는 사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다.<sup>9)</sup> 隋代에 이르러 文帝는 開皇 3年(583) 4月 「天下勸學行禮」의 조서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建國重道，莫先于學，尊主庇民，莫先于禮，治國之身，非禮不可。……若敦以學業，勸以禮經，自家可慕大道，人希至德。”(「隋書·柳昂傳」)

“학업을 돈독히 하려면 禮經의 가르침을 권장해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대도를 흠모하여 지덕에 이르기를 희원할 것이다”라는 말은 교육과 관련되어 실시하는 각종 禮儀의 실시 목적과 그 효용성을 분명히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앞의 漢武帝 때의 조서 내용과 비교해 보면 학례의 실시목적은 이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단 역대 학례가 모두 教育的 意義를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西晉 武帝 泰始年間(265~274) 이전만 하더라도 위에 적기한 여러가지 禮儀는 학교가 아닌 辟雍에서 거행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의의보다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

學禮는 「(晉武帝)泰始·(惠帝)元康 年間 釋奠禮를 辟雍에서 太學으로 이전」<sup>10)</sup> 하면서부터 강한 교육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당시 “國家의 大事”<sup>11)</sup>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고, 교육이 종교의 범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후 역대 왕조에서는 오직 釋奠禮 하나만을 중심으로 學禮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위 隋文帝의 조서에서 언급한 學禮도 실은 이 釋奠禮의 실시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釋奠禮는 「禮記·文王世子篇」의 「凡始立學者，必釋奠于先聖先師」에서 기원한 것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에서 존송하는 先聖先師에 대해 거행하는 禮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祭禮가 그 대상을 중요시 하고, 받드는 대상에 따라 의미해석이 다르듯이 석전 대상도 처음부터 그 선정 표준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역대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였다. 「禮記」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漢代 鄭玄도 단지 「聖道를 전수하는 데에 공이 큰 者」라고만 할 뿐, 聖道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漢·魏 이래 그 대상은

---

9) 高師明師씨는 이를 도표로 잘 정리해 주고 있다. 氏著, 앞의 책, pp.144~149, 〈兩晉南北朝中央官學的學禮〉 참조.

10) 이는 晉 范汪의 「尚書大事」(「太平御覽」卷535 尚書條에 인용)에 실려 있는 尚書와 太常 王彪간의 書簡에 보인다.

11) 앞의 주 10)과 같음.

「取舍各異，顏回·孔子，互作先師：宣父·周公迭爲先聖」<sup>12)</sup> 하여 先師는 주로 儒宗들이었지만, 先聖은 통치자의 「道統」, 「治統」 우선의 저울질 속에서 孔宣父와 周公이 번갈아 가며 자리매김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後漢 明帝 永平 2年(59) 이후에는 周公을 先聖, 孔子를 先師로 규정하였지만,<sup>13)</sup> 曹魏 齊王芳 正始 7年(246) 12월에 가서는 孔子를 先聖, 顏回를 先師로 개정하여, 西晉 및 南北朝, 隋代에 이르기까지 이를 通制로 삼았다.<sup>14)</sup>

唐代에 이르러서도 聖師制에 대한 논쟁은 초기부터 격렬하였다. 高祖 때에는 周公·孔子의 「二聖制」 및 「聖周師孔制」를 채택하였으나,<sup>15)</sup> 太宗 貞觀 2年(628) 12월에 가서는 尚書左僕射 房玄齡과 國子博士 朱子奢의 「庠序置奠，本緣夫子」<sup>16)</sup> 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결국은 「聖孔師顏制」를 채택하였다. 이 때부터 「治統」의 상징이었던 周公은 교내의 석전 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반대로 孔子와 顏回로 대표되는 儒家 인물은 태종의 儒敎主義 교육정책과 결부되어 교내의 석전 대상으로 완전히 고착되었고, 존숭 관념도 갈수록 강화되었다. 貞觀 4年(630)에는 전국의 州縣 지방 관학에도 孔子廟를 건립토록 하였으며,<sup>17)</sup> 11년(637)에 가서는 孔子를 「宣父」라 追尊하였고, 21년(647)에 가서는 左丘明 이하 22人에 대해 「自今有事太學，可與顏子俱配享孔子廟堂」의 조서를 내려 先儒들에 대한 從祀制까지 마련하였다.<sup>18)</sup> 태종의 이러한 노력은 儒敎主義 敎育理念을 널리 보급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의는 學禮의 강화를 통해 校園의 신성화와 士者들의 敎育理想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

太宗 때 제정한 「聖孔師顏制」 및 先儒들에 대한 「從祀制」는 高宗 永徽 2年(651)에 이르러 심각한 타격을 보았으나,<sup>19)</sup> 顯慶 2年(657) 7월에 이르러서는 長孫無忌와 許

12) 「唐會要」卷35 「褒崇先聖條」.

13) 「後漢書·禮儀志」.

14) 이상은 唐 太宗 貞觀 2年(628) 12月 房玄齡·朱子奢가 「庠序置奠，本緣夫子，故晉·宋·梁·陳及隋大業故事，皆以孔子爲先聖，顏回爲先師。歷代所行，古人通允。伏請停祭周公，升夫子爲先聖，以顏回配享。」(「唐會要」卷35 「褒崇先聖」條 및 「新唐書」卷15 「禮樂志」에 보임)이라 상주한 것에 따른 것이다.

15) 唐 高祖 때의 聖師制 내용에 대해서는 「舊唐書」卷189上 「儒學傳序」 및 「新唐書」卷15 「禮樂志」, 「冊府元龜」卷604 「學校部奏議」에 상세하다.

16) 앞의 주 15)와 같음.

17) 「新唐書」卷15 「禮樂志」.

18) 이상은 「新唐書」卷15 「禮樂志」 및 「舊唐書」卷189上 「儒學傳序」에 보인다.

19) 永徽 2年(651)閏4月 永徽令을 반포할 때 “周公爲先聖，黜孔子爲先師，顏回·左丘

敬宗 등의 奏議를 받아들임으로써 「聖孔師顏制」 및 「從祀制」가 다시 회복되었고, 唐代 「聖師制」에 대한 논란도 종말을 고했다.

중국의 모든 전통 제도는 대부분 「貞觀之治」와 「開元之治」로 상징되는 盛唐時期에 이르러 특징이 구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 관련된 제도는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의 학교 제도는 漢 이래 발전해 온 학교제도를 결집하여 宋 이후 중국 교육사의 발전으로 연결시켜주는 承前啓後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주변국가의 학교 건립에 견본이 되어 주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점이라면 儒敎主義 敎育이 弘場이란 대 전제하에 學制와 學禮를 결부시켜 士者들의 敎育理想을 강화시켜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唐太宗 貞觀 4年(630) 전국의 학교에 걸쳐 孔子廟를 보편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한 이후 清末에 이르기까지 「廟學制」는 전통학교 제도의 공통 특징이 되었다. 대외적으로 唐이후 주변국가, 특히 한국에서도 중국학교 제도의 이러한 특징을 수용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宋 이후 중국은 유목민족의 침탈하에 그 고유의 정치제도는 많은 특징을 잃었지만, 교육 정책은 여전히 漢族 고유의 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어쩌면 儒敎主義 敎育理念은 더욱 강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복왕조의 孔聖에 대한 존숭 및 釋奠禮의 강화 태도에서 볼 수 있다.

宋은 眞宗 大中 祥符 元年(1008)에 孔子를 「玄聖文宣王」, 그리고 同王 5年(1012) 12月 壬申에 가서는 「至聖文宣王」으로 각각 존칭하였다.<sup>20)</sup> 徽宗은 崇寧 4年(1105) 孔聖에게 天子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의 제자 子思도 孔廟의 從祀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다.<sup>21)</sup> 高宗은 紹興 2年(1132) 남친한 孔聖의 49世孫 孔介를 「衍聖公」으로 봉했다.<sup>22)</sup> 그리고 度宗 咸淳 3年(1267)에는 「五聖」(按: 孔聖 외에 顏淵·曾參·子思子·孟子)를 配享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北宋을 멸망시키고 증원에 입성한 정복왕조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너의 이러한 말들이 오랑캐들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聖像과 儒術을 멸시하였지만, 얼마 없어서는 사회안정과 통치기층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해 漢儒 및 儒

---

明從祀.”(「通典」·「禮典釋奠孔子祠條」)라 하여 孔子를 先師의 지위로 격하시켜 버렸는데,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그의 실책으로 볼 수 있다.

20) 「宋史·眞宗紀」. 이전 唐 玄宗 開元 27年(739) 8月 孔子를 「文宣王」으로 追封하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公·侯·伯으로 封했다.(「舊唐書·禮儀志」)

21) 「宋史·徽宗紀」.

22) 「宋史·高宗紀」.

家教育에 대한 존송하기 시작했다.

遼太祖는 즉위 후 待臣들에게 「受命之君，當事天敬神，有大功德者，朕欲事之，何先?」이라 묻자, 대부분의 신하들은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불교 우선론을 주장하였지만, 태조 자신은 「佛非中國教」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태자 耶律倍가 즉시 「孔子大聖，萬歲所尊，宜先」이라 간언하자, 그는 즉시 이를 받아들여 孔子廟를 건립하고 황태자로 하여금 春秋로 釋奠禮까지 치루도록 하였다.<sup>23)</sup>

遼成宗 때 參知政事同知樞密院事兼修國史 직에 출임한 바 있는 馬保忠은 「上皇帝崇儒術」에서…

「強天下者儒道，弱天下者吏道，……崇儒道則鄉黨之行修，修德行則冠冕之緒崇，自今其有非聖帝明王孔孟聖賢之教者，望下明詔通禁絕之。」(「契丹國志」)

라 하였고, 天祖帝 때 王감 역시 「三河縣重修文宣王廟記」에서…

「我先師孔子，…訓導三千徒，…皇皇行道，汲汲救時，大經大本，博照今昔，實百代帝王之師，開任進門，緝人倫紀，萬化之原，由此突出。天下被芒極之恩，率皆仰敬。」(「全遼文·卷10」)

이라 하여 儒道와 儒術의 중요성을 각각 역설하였다. 이러한 거란족의 漢儒 존중 및 그에 대한 교육태도는 金 이후 유목 민족 통치자의 거울이 되어 주었다.<sup>24)</sup>

金도 처음에는 遼와 마찬가지로 유술을 배척하였지만, 熙宗 이후에는 孔廟를 重修하고 魯地에 은거해 있던 孔聖의 후예를 찾아내어 衍聖公으로 봉하였으며, 심지어 그는 직접 孔廟에 이르러 北面 祭拜까지 하면서 待臣들에게 이르기를 「孔子雖無位，其道可遵，使萬世敬仰!」이라 하는 등 儒術에 대한 존송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sup>25)</sup>

世宗은 大定 14년(1174) 孟軻를 顏回에 비견할 목적으로 그를 鄒國公으로 追封하여 지위를 승격시켰고, 또한 그의 像을 孔廟 後堂에서 正殿으로 이전하여 顏回像과 함께 양쪽에서 聖像을 侍坐토록 하였다.<sup>26)</sup> 또한 「論女眞習儒學儒術」에서도 그는 …

「夫儒者操行清潔，非禮不行。以吏出身者，自幼爲吏，習其貧墨，至于爲官，習性不能遷改。政道興廢，實由于此。」(「金史·世宗本紀」)

라 하여 역대 漢王 못지 않은 儒術 존송론을 내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

23) 「遼史·取律倍傳」.

24) 程方平, 「遼金元教育史」(重慶出版社, 1993年 4月), p 174.

25) 「金史·熙宗本紀」.

26) 「金史·世宗本紀」.



원 침탈후 유목민족이 전개한 漢族에 대한 自我中心의 무력통치에 대한 그 한계성마저 엿볼 수 있다.

元도 처음에는 南進하면서 曲阜의 孔子廟를 방화해 버리는 등 유교에 대한 멸시는 遼나 金보다 강렬하였지만, 얼마 없어서는 孔子의 후손을 찾아내어 衍聖公으로 봉했고, 27) 成宗 大德 4年(1300)에는 대규모의 聖廟를 증수<sup>28)</sup>하는 등 尊儒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武宗은 즉위(1307)하자마자 孔子를 「大成至聖文宣王」으로 追尊하였고, 文宗 至順 3年(1330) 顔子 復聖, 曾子를 宗聖, 子思子를 述聖, 孟子를 亞聖으로 封하는 등 儒敎에 대한 존숭이 대단하였다. 이들이 漢儒에 대한 존숭은 사실 遼 太祖 耶律阿保機 9世孫 耶律楚材(1190~1244)의 노력에서 발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以儒治國」과 「宣尼萬世帝王師」의 투철한 의식으로 참정시기 많은 「尊孔興學」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遼 이래 계승 발전해 온 유목민족들의 崇儒文敎政策을 잘 받아들여 元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尊孔意識」을 심어주도록 한 일등공신이였다.<sup>29)</sup> 元의 이러한 尊孔意識은 대외적으로도 매우 중시되어 高麗 忠烈王 이후에는 元의 사신들이 高麗에 도착하게 되면 孔廟에 이르러 拜謁하고, 그 典禮를 지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처럼 보였다.<sup>30)</sup>

漢族의 통치주권을 되찾은 明은 「崇儒道」 및 「尊君權」의 기치하에 「尊敬儒術」를 국책으로 삼아 전제 군주통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당시 유교주의 교육진흥은 왕조의 역점사업이었다. 「治國之要教育爲先, 教育之道, 學校爲本」이라는 敎令을 반포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학교에 이르기까지 聖道를 강론토록 함으로써 선왕들의 교육전통을 회복하고, 유목민족들에 의한 오염된 습속을 하루 빨리 변혁토록 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sup>31)</sup>

단, 聖道를 강론함에 있어 明은 특별히 「程朱理學」을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元 이래 佛敎와 道敎, 儒敎가 혼잡되어 있었던 儒道를 「弊端」 내지는 「異端」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嘉靖 9年(1500) 大學士 張憲의 건의로 文廟祀典에 대해 일대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어쩌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32)</sup>

27) 「關里志」·「元太宗元年條」.

28) 「元史」·成宗紀」.

29) 그의 사적은 「元史」·取律楚材傳」 및 「湛然居士文集」에 상세히 전한다.

30) 「高麗史」卷32·41 「世家」 참조.

31) 「南雍志」卷1 「事紀」.

32) 당시 文廟祀典의 개혁배경에 대해서는 朱維靜, 「中國經學與中國文化」(「復旦學報」社會科學版, 1986年 第2期)에 상세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李之藻 「반宮禮樂疏」卷1 및 卷2에 상세하다.

이 때 孔聖에 대해서는 「至聖先師」라 존칭하였다.

滿淸 정부는 만주족의 漢化를 우려한 나머지 滿漢 분리 정책을 펼쳤지만, 「崇儒道」·「尊君權」에 의한 전제군주 통치체제의 강화는 이전 明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치 이념이 필요하였고, 그 이념은 부득불 儒家의 統治思想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과 교육정책도 뚜렷해질 수 밖에 없었다.

滿淸 정부의 교육정책은 원칙상 明의 「尊敬崇儒」 정책을 계승하였다. 특히 程朱理學을 지도 사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漢儒에 대한 존숭 태도도 이전 시기에 비해 쇠퇴하지 않았다.<sup>33)</sup> 특히 康熙·雍正·乾隆帝는 曲阜 聖廟에 이르러 謁聖까지 하는 열의를 보였고, 順治 2年(1645) 및 동왕 14年(1657)에 가서는 孔聖을 「大成至聖文宣先師」, 「至聖先師」로 각각 존숭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漢武帝 元朔 5年(B.C. 124) 「興太學」 이후 清末까지 발전해 온 중국 전통의 학교 제도는 주로 敎育理想의 구체화와 敎育 장소의 신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學禮 특히 釋奠禮의 보급 및 실시 강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宋 이후 정복왕조의 교육정책에서도 이는 일관된 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漢文化에 대한 존숭 내지는 중국 전통 敎育理想에 대한 발양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끼쳐 그들이 중원을 지배할 시기 주변민족,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들에 대한 정치적 반항심리도 조성되어 있었지만, 중국 전통의 敎育문화를 발양하려는 심리에는 中外 왕조가 다를 바 없었다. 때문에 唐·宋 제국이 사라지고 난 후 동아시아의 일원적 정치질서는 수시로 조정되었지만, 儒家主義 敎育을 중지로 삼는 그 이념은 여전히 동아시아에 보존되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체를 막아주는 주요 방과제가 되어주었다. 다음은 석전례의 敎育적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唐 貞觀·顯慶時代 「聖孔師顏制」 및 先儒들에 대한 「從祀制」를 채택한 후로 釋奠禮制에서 지칭하는 先聖先師는 孔門 및 儒道를 발양하는데 공이 큰 인물로 선정되어 학교 敎育현실과 그 理想은 처음으로 일치되었다. 학교 敎育현실이란 唐代에 이르러 완비된 儒家主義 敎育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敎育理想은 석전례가 내포하고 있고 敎育 의의, 즉 「希聖希賢」에서 「成聖成賢」에 이르는 학교 敎育이상의 최고 경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敎育理想은 宋 이후 中外 왕조 모두 자기의 전통으로 발전시키면서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통된 敎育전통이

33) 毛禮銳·沈灌都主編, 「中國敎育通史」 第3卷(山東敎育出版社, 1987年 1版), pp. 385~393.

되었다.

宋 이후 중국 및 주변국가의 학교제도를 살펴보면 學制 方面에 있어서는 자국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잦았지만, 유교주의 교육 이념을 공통지표로 삼는 釋奠學禮의 실시는 오히려 강화되어 唐代 형성된 「東亞教育圈」의 존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Ⅲ. 釋奠學禮 韓國에서의 발전

#### 1. 釋奠學禮의 受容…統一新羅時代

중국에서 釋奠禮가 學禮를 대표하기 시작한 것은 西晉 武帝 泰始年間(268~274) 부터이고, 그 교육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내포하기 시작한 것은 唐 太宗 貞觀 이후 「聖孔師顏制」 및 先儒들에 대한 「從祀制」가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교내에서 실시하는 學禮는 먼저 學制의 완비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중국은 늦어도 唐 太祖 貞觀 연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조건이 완비되었다. 단, 외국의 경우는 우선 중국식 學制의 도입시기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언제부터 중국식 학교 교육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學禮, 즉 釋奠禮까지 실시하기 시작하였을까?

문헌에 의하면 한국은 삼국시대 고구려가 맨 먼저 소수림왕 2년(372)에 중국식 학교 제도인 「太學」을 건립하여 「자제들을 교육하였다」고 전한다.<sup>34)</sup> 이에 대해 高師明士는 당시의 太學은 東晉(멀리는 西晉)의 學制를 모방한 것이라 하였다.<sup>35)</sup> 372년은 東晉 咸安 2년에 상당한다.

일찍이 西晉은 武帝 咸寧 2年(276) 5월에 「國子學」을 건립하여,<sup>36)</sup> 기존의 太學과 함께 兩學竝立制를 취했다. 그러나 武帝 泰始年間(265~274) 釋奠禮를 학교(太學)로 이전한 이래 南朝 宋까지 그 禮는 당시의 최고학부인 國子學이 아니라 전통이 서려 있는 太學에서 거행하였다.<sup>37)</sup>

東晉도 처음에는 西晉의 학제처럼 太學 단일 학제로 출발하였지만, 孝武帝 太元

34) 「三國史記·高句麗本紀」.

35) 자세한 상황은 氏著, 앞의 책, 「高句麗的學校」, pp. 260~266 참조

36) 「晉書」卷3 「武帝紀」.

37) 이상 西晉 泰始年間 이래 太學에서의 釋奠禮 거행 사실은 「晉辟雍碑」 및 「晉書」卷 19·21 「禮志」, 卷55 「潘尼傳」, 「宋書」卷14 「禮志」 등에서 볼 수 있다.

10年(385) 2월에 이르러서는 國子學과 함께 「孔子廟」까지 건립하였다.<sup>38</sup> 그러나 이는 고구려의 太學 건립 시기(372)보다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國子學에 孔子廟를 건립하기 이전, 학례는 태학에서 거행하였다.

그래서 泰始年間(265~274) 이후 西晉이나 東晉은 모두 학례의 실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를 전통이 서려 있는 國學에서 거행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372년에 건립한 고구려의 太學이 중국의 제도(직접적으로는 東晉, 멀리는 西晉의 학제)를 取用한 것이라면, 왜 그 교육 실시의 흔적만 보일 뿐,<sup>39</sup> 學禮 실시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기타 백제의 경우도 학교 교육의 실시 사례는 보이지만, 학례의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라는 통일 이전에는 주로 고유의 화랑제도를 통해 인재가 배출되고 있었으며, 중국식 학교 제도인 國學은 통일 후 신문왕 2년(682)에 가서야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의 學制나 學禮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경우는 나중에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추측컨대 삼국시대 學禮 실시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구려 太學教育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전하는 기록이 거의 없어 자세한 상황을 고찰해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백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위의 추측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당시 삼국은 항쟁시기였고, 官府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처럼 군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어 제국통치의 근간으로 삼으려 한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는 삼국 시대에 이미 중국의 학교제도를 수용하여 이를 설치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중국처럼 관리양성소로의 기능은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學禮의 실시 정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선 학교 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增補文獻備考」 卷 202 「學校考·太學條」에서는 648년(당 태종 정관 22년) 金春秋가 唐의 「국학에 이르러 釋奠禮 및 講論을 참관」한 것을 「東國(안:한반도를 지칭)에서 釋奠禮를 알게 된 시초」라 하였다. 이게 기정사실이라면 648년 이전까지 고구려나 백제는 비록 중국의 학교 제도를 수용하고는 있었지만,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례에 대해서는 아직 거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38) 「晉書」 卷9 「本紀」.

39) 앞의 주 38)과 같음.

같이 해석해 보고 싶다.

첫째, 위 「增補文獻備考」의 기재가 사실이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 고구려나 백제는 학교는 설치해 놓고 있었지만 국내의 여러가지 정황 때문에 그 교육의 발전 정도는 상당히 지지부진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學禮는 완비된 學制(학생 모집에서부터 학관의 임명, 교육장정, 일정한 교육 장소 등) 위에서만이 그 실질적인 교육적 의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學制 자체마저 완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학례의 실시란 자연히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둘째, 「增補文獻備考」編者の 말처럼 648년에 이르러서야 東國에서 중국에서의 學禮 실시를 알았다고 한다면, 682년 國學을 건립할 즈음에는 이에 대한 수용 및 그 禮를 실시한 흔적이 나타나 있어야만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禮의 도입과 관련된 시기는 다시 약 35년이 지난 성덕왕 16년(717·당 현종 개원 6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나타나고 있으며,<sup>40)</sup> 그 禮를 실시한 시기는 다시 약 50년이 지난 혜공왕 원년(765)에 이르러서야 기록에 보이는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일까? 이는 682년에 설립한 국학 교육이 과연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확산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어쨌든 신라 학례의 도입으로부터 그 禮의 실시 과정상에 나타나는 시간적 격차를 밝혀내는 것도 신라 교육의 발전상을 규명해 내는 데에 하나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삼국시대 한국은 중국의 학교제도를 수용하고는 있었지만, 이는 주로 學制에 관련된 것일 뿐, 그 속에 학례의 실시까지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면 일찍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뚜렷한 교육 이념마저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당시 한반도는 삼국 항쟁시기였고, 중국과의 모든 외교는 문화교류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하였기 때문에 미처 이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사절 단들에 의해 들여 온 禮儀制度가 전무했던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한·중 양국의 전적 가운데 한국의 釋奠禮 수용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라 성덕왕 16년(717·당 현종 개원5년) 入唐大監 金守忠이 唐으로부터 귀국하면서 「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를 들여와 이를 大學에 안치했다」는

40)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聖德王 16年條」에 의하면 「入唐大監 金守忠이 귀국하면서 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를 들여와 헌상하자 이를 대학에 안치했다」고 하는데, 이는 唐의 현행제도와 괴리된 점이 많다.

것이다.<sup>41)</sup> 그 이전 648년(신라 진덕왕 2년·당 태종 정관 22년) 唐에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金春秋는 「國學에 이르러 釋奠 및 講論을 참관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sup>42)</sup>

당시 그가 이를 참관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훗날 무열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금새 학교를 설치하거나, 이를 국내에 도입하려 한 노력은 볼 수 없다. 그리고 金守忠의 入唐 사실을 중국측 문헌에서는 볼 수 없다.<sup>43)</sup> 그리고 이 때 그가 聖像 등을 수용해 왔다면, 왜 이들에 대한 의례의 거행은 그 후 약 50년이 지난 혜공왕 원년(765)에 가서야 처음 나타나는 것일까? 그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중국의 현행 제도와 위 「三國史記」의 기록은 여러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혜공왕 원년(765) 이후 신라 學禮의 실시 사례는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① 惠恭王元年(765), 幸大學, 令博士講尚書義. (卷8)
- ② 惠恭王十二年(776)二月, 幸國學聽講. (卷9)
- ③ 景文王三年(863)二月, 令博士以下講論經義. (卷11)
- ④ 憲康王五年(879)二月, 幸國學, 令博士以下講論. (卷11)

비록 釋奠禮를 거행했다고 하는 확실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惠恭王 元年(765)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의 행학 시기가 「大唐開元禮」의 규정(2월 및 8월 上丁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sup>44)</sup> 그리고 幸學 후 博士들로 하여금 講論까지 행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이를 신라에서의 釋奠禮 거행사례로 보아도 될 것 같다. 講論의 교재도 「五經」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말한다면 신라가 學制와 學禮가 결부된 儒敎主義 敎育理想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혜공왕 원년(765)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라는 682년에 중국식 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國學을 설치해 놓았지만, 처음부터 그 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이다. 이는 신라 고유의 花郎敎育이 9세기까지 존재하여 國學敎育 발전의 일대 장애 요인이 되었다는

41) 앞의 주 40)과 같음.

42) 「三國史記」卷「新羅本紀」 및 「舊唐書」卷199上「東夷·新羅傳」.

43) 「三國史記·新羅本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聖德王 13年(714)에 入唐宿衛하여 동왕 16年(717)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숙위 기간이 3년이었던 당시의 숙위 상황에 비해 이는 색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사실의 신빙성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44) 「大唐開元禮」의 釋奠禮制에 관해서는 앞의 拙文, pp.106~111 참조.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sup>45)</sup>

신라 國學 내에 孔子廟 설치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단, 「三國史記」卷40 「雜誌·職官下條」에 「孔子廟堂大舍」 직이 적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廟는 확실히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만일 그 연대가 밝혀진다면 國學教育의 발전 양상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지방 교육의 경우 학교교육 실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어도,<sup>46)</sup> 孔子廟의 설치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 중국식 학교 제도, 특히 學禮의 수용과정에 관해 살펴 보았다. 삼국시대 신라를 제외한 고구려나 백제는 모두 중국의 학교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이는 學制에 치중한 것이었고, 學禮의 수용 내지 실시 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못했다. 한국이 儒敎主義 教育理念에 입각하여 學制와 學禮가 결부된 학교 제도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의 서술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특히 해공왕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신라 시대는 중국 學禮의 수용시기로 볼 수 있다.

## 2. 釋奠禮制의 普及… 高麗時代

고려(918~1392)는 그 존속기간이 장구하다보니 당시에 시행한 각종 제도는 같은 시기 중국 왕조(五代·宋·遼·金·元 및 明初)의 성분이 많이 참작되었다. 교육사(과거제도까지 포함)에 관련된 제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 宋 이후 중국의 교육제도(과거제도까지 포함)는 唐代에 완비된 제도를 기반으로 수정, 발전해 나간 것이므로, 이를 수용한 고려의 교육제도에도 唐制의 성분이 많이 보인다. 學禮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종전 고려시대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선학들의 업적이 많지만, 學禮 부분에 관한 언급은 드물다.<sup>47)</sup> 본문에서는 주로 學禮를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45) 花郎교육과 國學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高明士, 앞의 책, pp. 297~310 참조.

46)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歷史學會, 一潮閣, 1983年)

47) 최근의 것으로 卓用國, 「韓國高麗朝의 教育演變及其受中國儒學의 影響」(臺北, 中國文化學院史學研究所, 民國 66年); 申千湜, 「高麗教育制度史研究」(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3年) 및 學禮에 관해서는 高明士, 앞의 「羅·麗時代廟學制의 創立與展開」, pp. 265~280; 朴贊洙, 「文廟享祀祭의 成立과 變遷」(『鄭在覺古稀記念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년) 등을 들 수 있다.

學禮는 교내에 孔子廟를 설치하여 先聖先師에 대해 거행하는 의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 출현 시기 및 교내 孔子廟의 설치 시기부터 집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고려 시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려시대 중앙학교를 「國子監」,<sup>48)</sup> 지방학교를 「鄉校」라 통칭한다면 이는 도대체 언제부터 설치한 것이며, 그리고 이들 교육 장소에 孔子廟는 과연 설치해 놓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儒敎主義에 입각한 교육 실시의 시기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麗初 教育史의 전개과정은 태조의 개경 및 서경에 대한 興學, 광종의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 성종의 國子監 설치 및 儒敎主義 정치이념의 구현으로 대략 할 수 있다. 이를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종이건 유교주의 정치 이념의 기틀은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성종 때에 이르러 儒敎主義 정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儒敎主義 教育理念의 구현과도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관학)는 군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고, 과거제도는 이는 걸맞은 인재를 선발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종 때에 이르러 학교 교육과 인재 선발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흥쇄가 왕권의 강화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나 전제 군주시대에 학교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고려는 태조 때부터 개경·서경에 학교를 설치하는 등 교육 진흥을 통한 인재 양성에 한치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sup>49)</sup> 광종 때 後周人 雙翼의 건의로 학문에 의한 인재 선발 제도의 시행은 지금까지의 교육 진흥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sup>50)</sup> 단, 이 때까지만 해도 教育理念 보급에 대한 노력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 후 고려 교육사는 성종에 이르러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첫째, 學制 方面에 있어 그는 즉위하자마자 「諸州郡縣, 選子弟詣京習業」<sup>51)</sup>의 조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학교 간의 교육 교류의 실마리를 풀어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

48) 「高麗史」 卷76 「選舉志」에 의하면 麗初부터 중앙학교의 명칭은 개명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49) 「高麗史」 卷74 「選舉志·學校條」에 麗初 교육발전상이 보인다.

50) 「高麗史」 卷73 「選舉志」, 高麗 科擧制度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許與植, 「高麗科擧制度史」(一潮閣, 1982年); 高明士, 「略論高麗科擧制度中的隋唐諸要素」(「韓國學報」, 臺北, 1983年) 등이 있다.

51) 「高麗史」 卷74 「選舉志·學校條」.



다. 이는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과 중앙과 지방학교 간의 통일된 교육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앙에서는 지방학교 교육의 진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학교 간의 교류는 唐 玄宗 開元 21年(733) 5월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sup>52)</sup>

둘째, 성종 5년(986) 7월에는 「(朕) 欲興周孔之風, 冀致唐虞之理, 庠序以養之, 科目以取之」<sup>53)</sup>의 교육 진흥 교서를 내렸다. 그 「欲興周孔之風」의 포부는 교육이념의 표방으로도 확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庠序以養之, 科目以取之」는 학교 교육(지방학교 포함)과 인재선발을 일체화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학교 교육 이념의 구현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기용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단, 그 교육 이념이 무엇인지 아직은 문헌상에 강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셋째, 성종 11년(992) 정월에는 「是以內開庠序, 敦崇儒術, 觀課生徒」의 교서를 내렸고,<sup>54)</sup> 동년 12월에는 동왕 2년(983) 5월 박사 任老成에 의해 宋에서 들어온 설계도면에 따라 大廟堂 등이 완공되자,<sup>55)</sup> 「王者化成天下, 學校爲先, ……置諸學校…其令有司, 相得勝地, 廣營學舍, 量給田莊」<sup>56)</sup>의 교서를 내려 학교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이 교서는 學禮 실시의 장소(文宣王廟)가 완비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므로,<sup>57)</sup> 여기에서 지칭하는 학교는 단순히 經學 등의 교육만을 전담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禮儀의 실시까지 겸비한 교육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選舉志」에서 이 내용 다음에 「又創國子監」이라 하여 새로운 교육기구의 탄생(創)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사실이라기 보다 종전의 학교 공간이 이 때에 이르러서는 大廟堂, 社稷堂, 文宣王廟 등을 건립해 놓음에 따라 宋의 國子監처럼 명실상

52) 「唐會要」卷35 「學校條」.

53) 앞의 주52)와 같음.

54) 「高麗史節要」卷2.

55) 당시 들어온 설계도면은 「高麗史」卷3 「成宗世家」2年(983) 5月 甲子條에 상세히 전한다.

56) 「高麗史」卷3 「成宗世家」.

57) 任老成에 의해 들어온 大廟堂 등 3개의 도면 가운데 오직 文宣王廟에 대한 완공기사만 보이지 않는다. 이는 史文의 생략일 것 같다. 高明士는 당시 文宣王廟도 大廟堂 등과 함께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의 「羅麗時代廟學的創立與展開」, p272.

부한 廟學制의 체제를 마련해 놓게 됨으로써 이처럼 개명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選舉志」睿宗 14年(1119) 7月條에 「自國初肇立文宣王廟于國子監, 建官置師」는 성종의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하는 것 같다. 더구나 「建官置師」까지 하였다는 얘기는 예종 14년(1119) 이전 이에 대한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 놓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고려시대 학교 교육은 성종 11년(992)에 이르러 학교 내에 文宣王廟를 갖추어 놓고 이를 國子監으로 개명함으로써 이제는 교학과 제사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한 교육장소로 탈바꿈하여 그 교육 이념이 강하게 표출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때 관리들로 하여금 지명이 빼어난 곳을 찾아 널리 학사를 짓도록 지시까지 한 것은 중앙 국가감을 모방한 지방 廟學의 설치를 독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나아가 이 때 지방 교육의 발전에도 일대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지방 교육의 출현에 대해서는 인종 5년(1127)의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를 성종시기로 소급해 주장하는 설<sup>58)</sup>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도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후자의 설에 동조하고 싶다.<sup>59)</sup> 그리고 「高麗史」卷63 「禮志」에는 「諸州縣文宣王廟」에 대한 禮儀制度까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학교에도 廟學制의 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없다. 단, 언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고려시대 文宣王廟에 대한 形制나 禮儀制度 등에 대해서는 「宣和奉使高麗圖經」卷16 「國子監條」 및 「(增補)東國輿地勝覽」卷4 「成均館條」, 「高麗史」卷62 「禮志·文宣王廟條」에 전한다. 본문에서는 「高麗史」禮志62·63 「文宣王廟條」 및 「諸州縣文宣王廟」에 나타난 禮典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唐代부터 文宣王廟의 제사 대상은 크게 主神, 配享, 從祀로 규정하였다.<sup>60)</sup> 위의 「文宣王廟條」에 의하면 主神은 「至聖文宣王」, 配享은 顏回, 그 밖에 廟堂 동벽에는 閔損·冉耕·冉雍·宰予·曾參, 서벽에는 端木賜·冉求·仲由·言偃·卜商·孟軻, 남벽에는 신라의 儒者 崔致遠·薛聰, 顏回등 모두 14位를 열상해 놓고 있다. 東廡에

58) 대표적인 것으로 앞의 卓用國, 申千湜, 高明士씨의 주장을 들 수 있다.

59) 그 외에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光廟之後, 益修文教, 內崇國學, 外列鄉校」, 「高麗史」卷110 李齊賢傳 및 成宗 6年(987) 「其州·郡·縣長吏百姓有兒可教學者, 并令訓戒」(「高麗史」卷74 「選舉志」)의 기사 등이 있다.

60) 「大唐開元禮」에 釋奠禮制에 관한 것은 卷1·卷52·卷53·卷54·卷69·卷72에 전한다.

는 70子 가운데 端孫師 등 41位를, 西廡에는 左丘明 등 43位를 열상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儒者들로 중국의 先儒와 함께 묘정에 열상해 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文昌侯 崔致遠과 弘儒侯 薛聰은 현종 11년(1020)과 동왕 13년(1022)에 이르러 從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sup>61)</sup> 그리고 위의 「禮志」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숙왕 6년(1319)에 이르러 安珦도 종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sup>62)</sup>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려시대 鄭夢周 등 모두 15位를 더 증렬하여 한국 廟學祀典의 일대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 의미는 儒學이 한반도로 전래된 후 이제는 학교 교육과 결부되어 自我發展의 경향까지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文廟禮와 관계된 것 가운데 독특한 것으로 진사 응시자들이 급제 후 그들의 學官을 찾아 參謝하고 이어 文宣王廟에 이르러 배알까지 하는 「謁聖禮」를 들 수 있다.<sup>63)</sup> 공거 급제 후 이처럼 실시하는 禮를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 그 자세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儒敎主義 敎育理想 표방의 한가지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과 공거제도를 일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를 과거 과목으로까지 설정하여 「謁聖試」의 출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한국에서 文宣王廟에 대한 禮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보다 강렬하였다.

이상 고려시대 학교 교육의 禮儀制度에 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유교주의에 입각한 學制와 學禮가 결부되어 그 敎育理想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성종 시기가 그 분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국의 학교에 걸쳐 廟學制의 형식을 구비해 놓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儒者와 중국 先儒를 묘정에 함께 열상하여 禮를 거행하는 것은 중국 儒敎主義 敎育理想의 토착화를 자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元이 집권한 이후도 文宣王廟에 대한 禮儀는 강조되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당시 來朝한 사신들은 학교에 親臨하여 敎育 및 學禮의 실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 같다.<sup>64)</sup> 따라서 麗末 廟學制의 진흥발전에 기여한

61) 「高麗史」 卷5 「顯宗世家」.

62) 「高麗史」 卷105 「本人傳」.

63) 「增補文獻備考」 卷184 「科制」條 恭愍王 元年 조항에 인용한 李穡의 말에 이에 대한 것이 보인다.

64) 忠宣王과 忠肅王은 春秋釋奠 학례에 모든 儒者가 참여하여 정결히 치르도록하는 교서를 각각 내렸다. 상세한 내용은 「高麗史」 卷32 및 같은 책 34 「世家」에 보임 그리고 元使들의 學校 親臨은 사실 「高麗史」 卷32 「世家」 忠烈王 27年(1301) 2月條 및 동왕 30年(1304) 6月, 恭愍王 15年(1366) 12月條(「世家」41)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공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3. 廟學制의 自我發展 … 朝鮮時代

중국의 廟學制는 통일신라 시대 한국으로 전래된 후 麗末鮮初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학교에 걸쳐 두루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自我發展의 성격까지 구비하기에 이르렀다. 麗末 鄭道傳은 「朝鮮經國典上·文廟條」에서…

「國家內自國都，外至州郡，皆建廟學，當春秋二仲上丁之日(필자按; 2월과 8월의 첫번째 丁日을 지칭)，祀之以禮載」(「三峯集」卷 7)

라 하여, 전국의 학교 공간이 이제는 교육과 제사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한 「廟學」의 장소로 변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에 대해 鮮初 權近은 「永興府學校記」(1403년 작성)에서 …

「立廟以祀先聖，入學以教子弟，遍天下歷萬歲以不廢，蓋人之有天性，固不可不學以學之，爲道尤不可不講聖人之書也。國家令府·州·郡·縣·，莫不置廟學，遺守令以奉其祀，置教授以掌其教；蓋欲宣風化，講禮儀，作成人材，以裨文明之治也」(「東文選」卷80)

라 하여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風化(필자按; 주로 유교 이념에 의한 교화를 지칭)를 선양하려면 禮儀를 강론하여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文明 治化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중국이나 한국 역대 왕조가 廟學制를 적극 추진해 나간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처음부터 儒敎主義 治國理念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입각한 교육 역시 발전 정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략 같은 시기의 廟學制 내용을 반영해 주고 있는 李廷龜는 「陰記」에서…

「古之立學者，各祭其國之先聖先師，夏學祀禹，殷學祀湯，周學祀文王，而又以其臣之有德業者爲師以配之，此乃廟學之權輿，而亦未嘗遍天下而通得祀焉。自吾夫者沒而天下翕然宗之，以爲聖莫如夫子，師莫如夫子，大而國學，以至庠·序，皆有夫子廟。… 況我東方，服父師八條之教，禮儀文獻著稱於中華者乎！」(朝鮮金石總覽，下「京城文廟碑」)

라 하여 우리나라에 廟學을 건립하게 된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더구나 「옛부터 학교 교육을 개창한 자는 각기 그 나라의 先聖先師를 제사하였는데, 夏에서는 禹, 殷에서는 湯, 周에서는 文王을 모셨다. 또한 그 신하 가운데 德業이 있는 자를 先師로 삼아 配享까지 하였다」는 얘기는 廟學禮典에 대한 운용 및 나아가서는 봉

사 대상에 대한 自我選定論까지 예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초부터 학교 교육(지방교육 포함)은 군왕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전해 갔다. 그러나 세조(1456~1468)의 信佛尚武 및 儒術排斥, 그리고 연산군에서 명종에 이르는 약 50년간(1495~1545)의 士林慘禍는 학교 교육 진흥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 때 儒者들은 각기 산림으로 은둔해 버림에 따라 학교 교육(관학)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고, 이어 書院教育이 흥기하면서 교육 중심은 관학에서 사학으로 이전되었다.<sup>65)</sup> 17세기 이후에는 몇몇 군왕들에 의한 관학 진흥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초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 후의 교육은 대체로 관학과 사학이 병행 발전해가는 형태를 띠었다.

이처럼 15세기 말 이후 국가의 교육 중심은 사학으로 점차 이전되는 추세였지만, 儒敎主義 敎育을 중지로 삼는 그 교육 이념은 관학이나 사학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서원 교육은 비록 사학이었지만, 그 교육의 담당자나 교재는 모두 관학과 마찬가지로 儒敎主義 敎育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말해 「成聖成賢」의 敎育理想은 둘 다 공통적었다는 얘기이다. 훗날 서원 교육(특히 사액서원)을 국가교육 사업의 하나로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면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교육기구(서원 포함)에서 거행한 제사 제도는 「增補文獻備考」卷204 「學校考·文廟條」에…

「文廟從享諸賢，一遵中國(필자按; 明朝를 지칭)之制; 東國諸儒從祀，依麗制。」

라는 말처럼 明制에 따랐고, 자국의 儒者에 대한 從祀는 麗制에 따랐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중앙 成均館의 제도에 따랐다.<sup>66)</sup> 그러나 조선시대의 文廟禮는 明制와 麗制에 비해 다른 면도 많다.

明은 嘉靖 9年(1530) 大學士 張揔의 의론에 따라 文廟祀典에 대해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하 嘉靖改制를 중심으로 韓·中 양국의 文廟祀典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별표와 같다.

이상에서의 <表>를 통해 明 嘉靖改制 이후 韓·中 양국에서 거행하는 文廟祀典은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祀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公伯寮 荀況 이하 10位를 축출해 버렸다는 점 뿐이다. 淸은 雍正 2年(1724)에 이르러 秦冉 등 6位를 다시 享祀對象으로 삼았다. 林放 등 7位에 대해서도 明은 享祀對象으

65) 朝鮮時代 書院敎育에 대해서는 丁淳睦, 「朝鮮書院敎育制度研究」(嶺南大學校出版部, 1980年 2版) 참조.

66) 鄭道傳의 「朝鮮經國典上」 「文廟」條에 「天下之通祀，惟文廟爲是」 하 하였다.

國名	中 國 (嘉靖改制以後)	韓 國 (朝鮮時代)
<p>改</p> <p>制</p> <p>內</p> <p>容</p>	<p>① 文廟의 亨祀對象을 先聖, 先賢, 先儒 3級으로 분류</p> <p>② 孔子 이하 塑像을 木主로 교체</p> <p>③ 孔子를 「至聖先師孔子神位」라 題名</p> <p>④ 「大成殿」을 「先師廟」, 「殿門」은 「廟門」으로 개칭</p> <p>⑤ 「四配」를 「復聖顔子·宗聖曾子·述聖子思子·亞聖孟子神位」라 함</p> <p>⑥ 十哲이하 及門弟子에 대해서는 모두 「先賢某子神位」라 함</p> <p>⑦ 在丘明 이하에 대해서는 「先儒某子神位」라 하고 종전의 公·侯·伯 등의 봉작을 치워버린다</p> <p>⑧ 後倉·王通·歐陽修·胡瑗·陸九淵을 增祀한다.</p> <p>⑨ 祀典에 부당한 자를 축출시킨다. 公伯寮 등을 치워버리고, 林放 등 7人은 鄉祀對象으로 내려 보낸다.</p> <p>⑩ 별도로 叔梁公을 봉사하고, 그 木主에는 「啓聖公孔氏神位」라 하며, 顔無繇·曾點·孔鯉·孟孫氏를 모셔 배양하도록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先賢」이라 부르고, 程珦·柱松·蔡元定을 종사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先儒」라 칭한다</p> <p>⑪ 舊樂章에 있는 「先聖」은 「孔聖」, 「王聖」은 「聖師」, 「維王」은 「維師」라 한다.</p> <p>⑫ 申黨은 申장이나 다름없는 것이니 「黨」을 「장」이라 한다.</p> <p>⑬ 隆慶5年(1571) 薛瑄을 從祀한다</p> <p>⑭ 萬曆12年(1584) 王守仁·陳憲章·胡居仁을 從祀한다</p> <p>⑮ 崇禎15年(1642) 宋의 六子(周·二程·張·朱·邵)를 「先賢」으로 개명한다.</p> <p>* 이하는 清代의 改制 내용</p> <p>① 康熙 51年(1712) 朱子를 大成殿으로 升拜하여 「十一哲」이라 부른다</p> <p>② 康熙54年(1715) 宋의 范仲淹을 增祀함.</p> <p>③ 雍正2年(1724) 嘉靖改制 때 축출되었던 林放 등</p>	<p>① 선조이후 質正官 趙憲 (전후3차례)·鎡臣·禮曹 判書 李延龜 등이 明의 嘉靖改制에 따라 文廟祀典에 대한 개혁을 상서했으나 당시 李退溪·尹根壽·王世定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 안됨(상세 내용은 아래의 「備考」에 보임)</p> <p>② 숙종8년(1682) 이후 金錫冉·金壽恒·宋時熱 등의 건의를 수용, 祀典에 대해 부분적 개혁 단행을 결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숙종8년(1682) 5월 정묘, 公伯寮 荀況·馬融·何休·賈逵·王肅·王弼·杜預·吳澄·申黨 등 10位를 문묘 사전에서 罷한다.</p> <p>* 宋의 楊時·李東·羅從彦 黃干을 문묘의 종사 대상으로 한다.</p> <p>* 숙종40년(1714) 8월 宋의 周敦頤·程○·程伊·邵雍·張載·朱熹 六子를 大成殿으로 升祀함</p>

國名	中 國(嘉靖改制以後)	韓 國(朝鮮時代)
	「六賢」을 復亨, 黃千 등 20位를 增祀	
典 據	李之藻, 「泮宮禮樂疏」 卷1·2 : 「明史」 卷50 「禮志」 「文廟祀典考」 卷1 : 「至聖編年世紀」	「增補文獻備考」 卷203 「學校考·太學條」 및 204 「文 廟條」 : 「肅宗實錄」 卷13上, 卷55

로 축출해버렸지만, 조선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漢의 後倉, 隋의 王通, 宋의 歐陽修 등 9位에 대해 明은 文廟의 從祀對象으로 삼았지만, 조선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선의 문묘에서는 봉사한 宋의 楊時, 羅從彥, 李洞, 黃千 4位에 대해 明의 祀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양국의 文廟 祀奠禮가 달랐던 것은 國情 및 그 추구하는 학풍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陸九淵이나 王守仁 등이 조선의 봉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그들의 학설이 李退溪 등에 의해 배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67)</sup>

그 밖에 양국의 文廟祀典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중국 先儒와 함께 묘당에 열상해 놓은 한국 儒者의 숫자가 모두 18位로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 18位는 다음과 같다.

東廡 : 薛聰, 安裕,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李長生, 金集, 宋浚吉

西廡 : 崔致遠, 鄭夢周, 鄭汝昌, 李彥迪, 金麟厚, 成渾, 趙憲, 宋時烈, 朴世采<sup>68)</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從祀制는 唐 太宗 貞觀 및 高宗 顯慶 연간에 이르러 확정되었다. 당시 그 대상의 선발은 「旣行其道(필자按; 儒道를 지칭), 理合褒崇」<sup>69)</sup>, 즉 聖道를 전수하는 데에 공이 큰 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처음부터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清代까지도 그 대상 선정을 둘러싼 논쟁은 그치지 않았다.<sup>70)</sup> 더구나 이러한 기준은 주변국가, 특히 조선으로 전래되고 난 후에는 봉당의 구실까지 제공하여 그 폐단은 중국보다 혹독하였지만, 대체로 그 범위를 벗

67) 李丙燾, 「韓國儒學史草稿」(서울대학교국사연구소실, 1959年) 第3編 第4章; 玄相允, 「朝鮮儒學史」(民衆書館, 1977年 第6版), 第10章.

68) 이상 18位의 文廟從祀 시기는 「增補文獻備考」 卷202~204 「學校考」에 상세하다.

69) 「舊唐書」, 卷189上 「儒學傳序」.

70) 「文獻通考」, 卷43 「學校考」, 馬端臨의 논평에 의하면 鄭玄도 오직 傳經 부분에만 치중하여 해석을 가하고 있다.

어나지 않았다.<sup>71)</sup>

어쨌든 조선시대에 이르러 18位의 자국 先儒를 중국의 先賢과 함께 묘당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從祀制, 나아가서는 廟學制의 이념이 비단 중국의 士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唐 이후 그 이념은 정치환경과 상관없이 동아시아에 공통된 교학정신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삼국시대부터 한국으로 전래되기 시작한 유교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발전을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사회의 윤리 척도로서까지 작용하였다. 한국에서 유교가 이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역대왕조의 儒敎主義敎育 진흥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 IV. 맺 음 말

중국의 儒家思想이 역사발전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이라면 양호한 교육 문화 전통의 수립을 들 수 있다. 이는 聖賢의 敎育理想을 널리 보급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漢代에 이르러 전통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唐代에 이르러서는 이를 대외적으로 전파하여 「東亞文化圈」을 형성하였다. 敎育史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 「東亞敎育圈」<sup>72)</sup>을 형성하였다. 그 교육권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중국식 學制가 아니라 學禮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宋 이후 동아시아의 일원적 정치질서 및 문화질서는 정복왕조의 침탈하에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지만, 淸末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공통 理想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理想은 政治理想이 아니라 文化, 특히 儒敎主義 敎育理想을 弘揚하기 위한 정신으로 일괄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宋이후 정복왕조나 주변국가, 특히 한국에서는 儒敎主義에 입각한 聖賢의 敎育理想을 표양했던 것일까? 이는 두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첫째, 통치자로서 얘기하자면 儒敎主義에 입각한 학풍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그 교육이념을 강화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관리인재를 배양하여 통치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까지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71) 이상 18位의 사적은 張志淵, 「朝鮮儒敎淵源」(明文堂, 1983年 8月), pp. 443~450에 상세하다.

72) 그 이론은 高明士에 의해 제기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앞의 책-결론부분- 참조



학교 교육은 시종 정치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중국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선천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모방하여 자국에 학교를 건립한 주변국가 역시 이러한 결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士人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국가의 교육지침에 따라 자신은 관리 진출의 세속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成聖成賢」의 인생 최고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唐 이후 중국 및 한국에서 전개된 교육 장소의 신성화나 그 理想의 구체화는 어느 한 방면의 노력에 의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목적 달성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宋 이후의 정복 왕조는 「武以治天下」로 漢族을 박대하였지만, 「文以理天下」의 역대 한족 통치술은 한족의 집권시기와 변함없었다. 遼太祖가 神冊元年(916) 황태자의 건의를 수용하여 「孔子廟」를 건립, 황태자로 하여금 춘추로 釋奠토록하였다」는 사실,<sup>73)</sup> 金熙宗 역시 「孔子는 비록 작위는 없지만 그의 道는 가히 존송할만한 것이니 萬世에 이를 받들도록 하여라」<sup>74)</sup>고 신하들에게 지시한 점, 章宗이 明昌 2년(1191) 전국의 학교 문전에 「下馬碑」를 건립토록 한 것, 元世祖가 中通 2년(1261) 「與學育才」의 조서를 내려 「勸學行體」를 강조<sup>75)</sup>한 사실등은 유목민족 위주의 통치술이 한계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삼국시대 중국의 학교 제도를 수용한 이래 中國的 教育文化 秩序(학교제도 수용 및 賓貢科 등의 과거제도에 참여)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의 교육제도(과거제도까지 포함)를 수용, 이를 자국의 정서에 맞게 개변,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學制의 개혁은 잦았지만, 學禮로 대표되는 儒敎主義 「成聖成賢」의 教育理想은 근대 서양의 학제를 채용하기까지 일관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儒敎主義 教育의 弘揚이란 대전제 하에 학교 교육과 서원 교육, 과거제도(謁聖試) 및 석전례 4가지를 하나로 묶어 士人들의 教育理想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종합해 말하자면 宋 이후 동아시아는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唐代에 형성된 일원적 정치 질서는 부침이 연속이었지만, 그 교육문화 질서는 근대 서양의 學制를 수용하기 이전까지 줄곧 그 세계에 존재하면서 결속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원동력은 中外 왕조의 儒敎主義 教育理念의 발양을 위한 공통심리의 조성에 있었던 것이

73) 「遼史」卷72 「耶律倍傳」

74) 「金史」卷4 「本紀」

75) “今遍各路如遇朔望，自長次以下，各率僚屬，燒香禮華，從學校主善講堂，同諸生及願從學者，講論經史，更相授矣，日就月將，教化可明，人才可”(「廟學典禮」「官吏詣廟學燒香講書條」)

며, 그러한 공통 심리의 조성과정에서 주변국가, 특히 한국의 노력은 간과될 수 없다.